

제왕절개수술 남용 많다

출산기가 있어 산부인과를 찾은 산모의 진통이 길어지면 의사들은 “제왕절개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”라고 말한다.

태어나 산모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아예 처음부터 의사에게 “제왕절개수술을 해달라”고 요구하는 임신부들도 많다.

이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제왕절개수술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최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신영수 교수팀은 ‘의료의 질 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조사연구’ 중간보고를 통해 “비적절한 제왕절개술이 다수 행해지고 있다”고 발표해 충격을 던져주었다.

대부분의 병원들이 자연분만보다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제왕절개분만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제기됐었지만 실제 제왕절개수술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나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.

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국 37개 병원에서 제출한 2천5백여개의 의료보험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분석한 이 조사는 ‘태아의 머리와 임신부의 골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아두골반 불균형증’을 이유로 실시된 제왕절개수술 중 25%가 비적절한 수술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.

연구팀은 요즘 ‘아두골반 불균형증’일 경우에도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국내의 무분별한 제왕절개수술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.

또한 조사결과 분만진통이 나타나기 전에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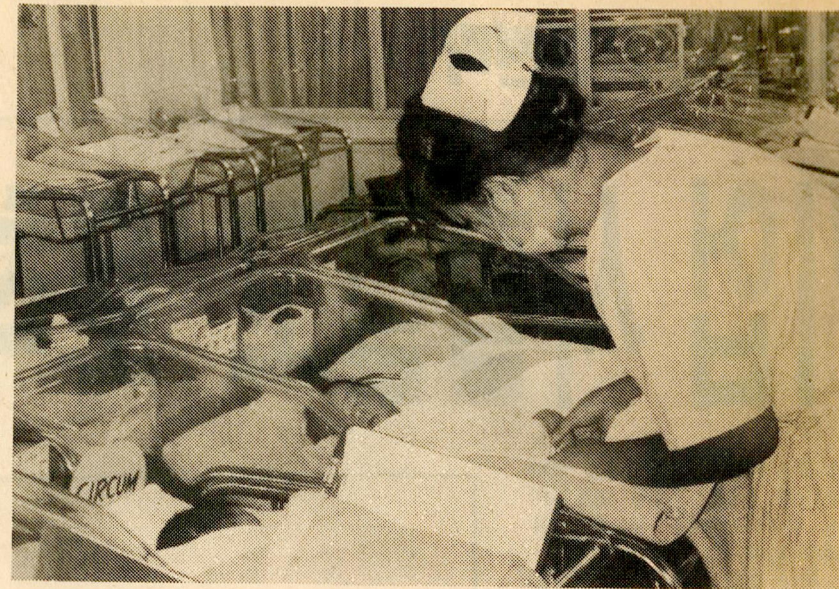
도 상당수임이 밝혀졌으며 수술비도 병원마다 30만~6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심했다.

연구팀은 “제왕절개술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적응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

마련이 필요하다”고 지적했다.

실제로 제왕절개분만 증가추세는 엄청나다. 지난 11월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조용균 과장팀이 90년 1년 동안 상계백병원을 찾은 임신부 2천9백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왕절개분만이 22.7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서울대병원 등이 개별적으로 실시한 병원별 실태조사에서도 제왕절개분만이 20%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. 이는 60년대 4%, 70년대 10%

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. 그러나 국내에서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

산모·병원쪽 모두 선호...전체 20% 웃돌아 '아두골반불균형' 경우 수술 25%가 불필요

수준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.

최근 발간된 <보건행정학회지> 창간호에 실린 논문 ‘제왕절개분만의 지역간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 특성요인분석’도 전국적인 제왕절개분만 증가추세를 잘 보여준다. 그동안의 조사

가 병원별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 충북대의대와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85년부터 87년까지 3년 동안의 의료보험관리공단 자료를 분석해 전국적인 제왕절개분만 실태를 밝혀낸 것이어서 주목된다.

조사결과 총 8만7천5백건의 분만 중 제왕절개분만은 1만4천2백99건으로 16.3%를 차지했다. 이 통계는 제왕절개분만이 잘 행해지지 않는 의원의 7.6%까지 포함한 통계로, 제왕절개분만이 흔히 행해지는 종합병원, 일반병원은

각각 24.5% 수준이다.

특히 이 조사에서는 병원특성별로 비영리성 종교법인병원은 18.5%였지만, 개인소유병원의 경우는 29.7%로 나타나 병원영리를 위해 제왕절개술이 더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잘 나타내줬다.

제왕절개수술이 많이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 임신부나 태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제왕절개술을 요하는 상태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.

<김미경 기자>